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 다문화 인식의 다면성

동아시아 공존·협력센터

조민효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최지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인의 다문화화에 대한 인식
3. 한국인의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인식
4. 한국인의 소속감
5. 세부집단별 다문화국가 인식
6. 나가며

01 들어가며

2019년 12월 기준으로 사상 처음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돌파하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가 외국인인 시대가 도래함.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서 나아가 실제 "다문화국가"의 문턱 다다름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명을 넘은 2007년 8월 전후로 한국 사회에 "다문화 열풍"이 불어옴.
주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과 법률이 제도화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마다 다문화 전담 부서가 신설됨

그러나 다문화주의를 곧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로 상정하고, 다문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논쟁에 대한 담론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

다문화 열풍을 겪은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들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는 소극적임 → 순진한(naïve) 온정주의적 태도 + 여러 다문화 갈등이 잠복

01 들어가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한국 주류 선주민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일자리 경쟁, 외국인 범죄 등의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2015년 전후로 '다문화 피로도'와 '다문화 혐오증'이 관찰됨

2015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에서 한국인은 과거의 온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다문화 사회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함 → 다문화 국가에 대한 지지가 상당수 감소

그렇다면 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에서는 2015년에 관찰된 다문화주의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자국우선주의와 제주도 난민 사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02 한국인의 다문화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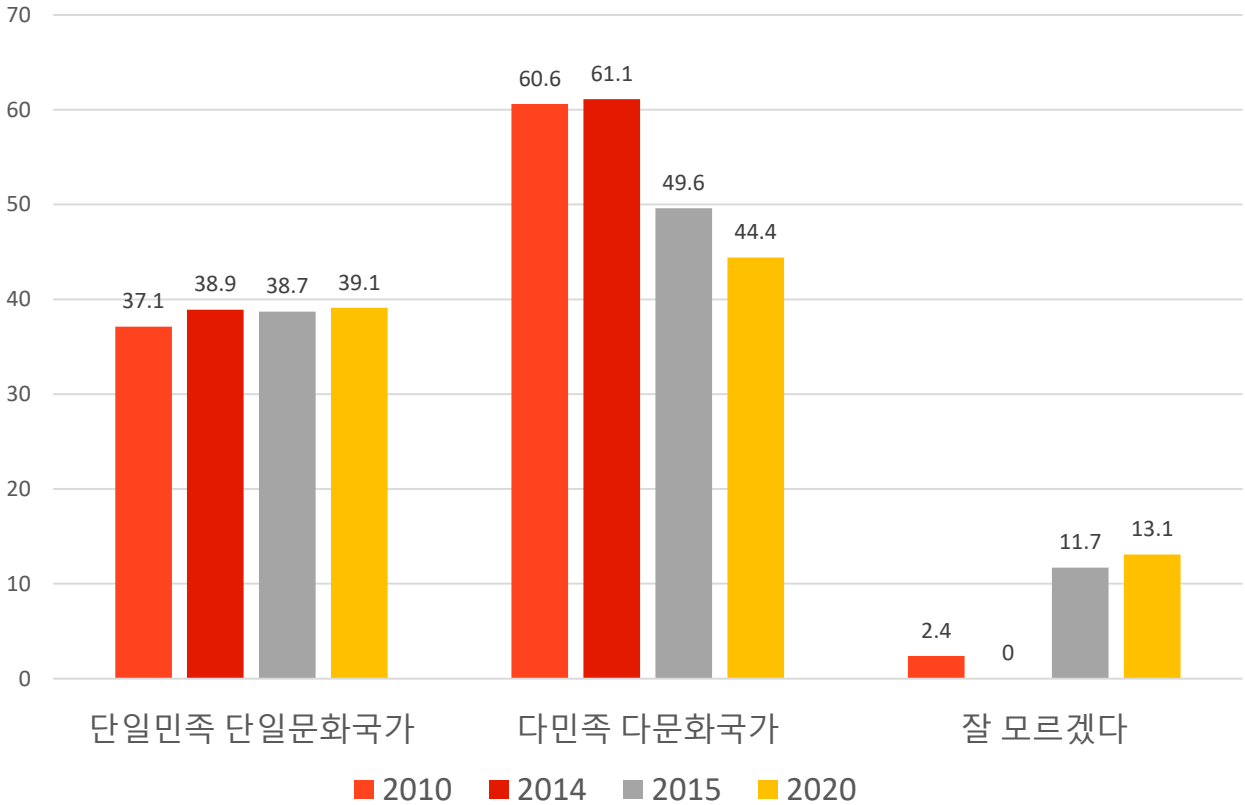
한국의 다문화화에 대한 태도 변화(2010~2020)

Q. 귀하께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단일민족 단일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민족,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다민족 다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2010	2014	2015	2020
단일민족 단일문화국가	37.1	38.9	38.7	39.1
다민족 다문화국가	60.6	61.1	49.6	44.4
잘 모르겠다	2.4	0	11.7	13.1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 ↓
다문화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 ↑



02 한국인의 다문화화에 대한 인식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변화(2010~2020)

Q. 귀하는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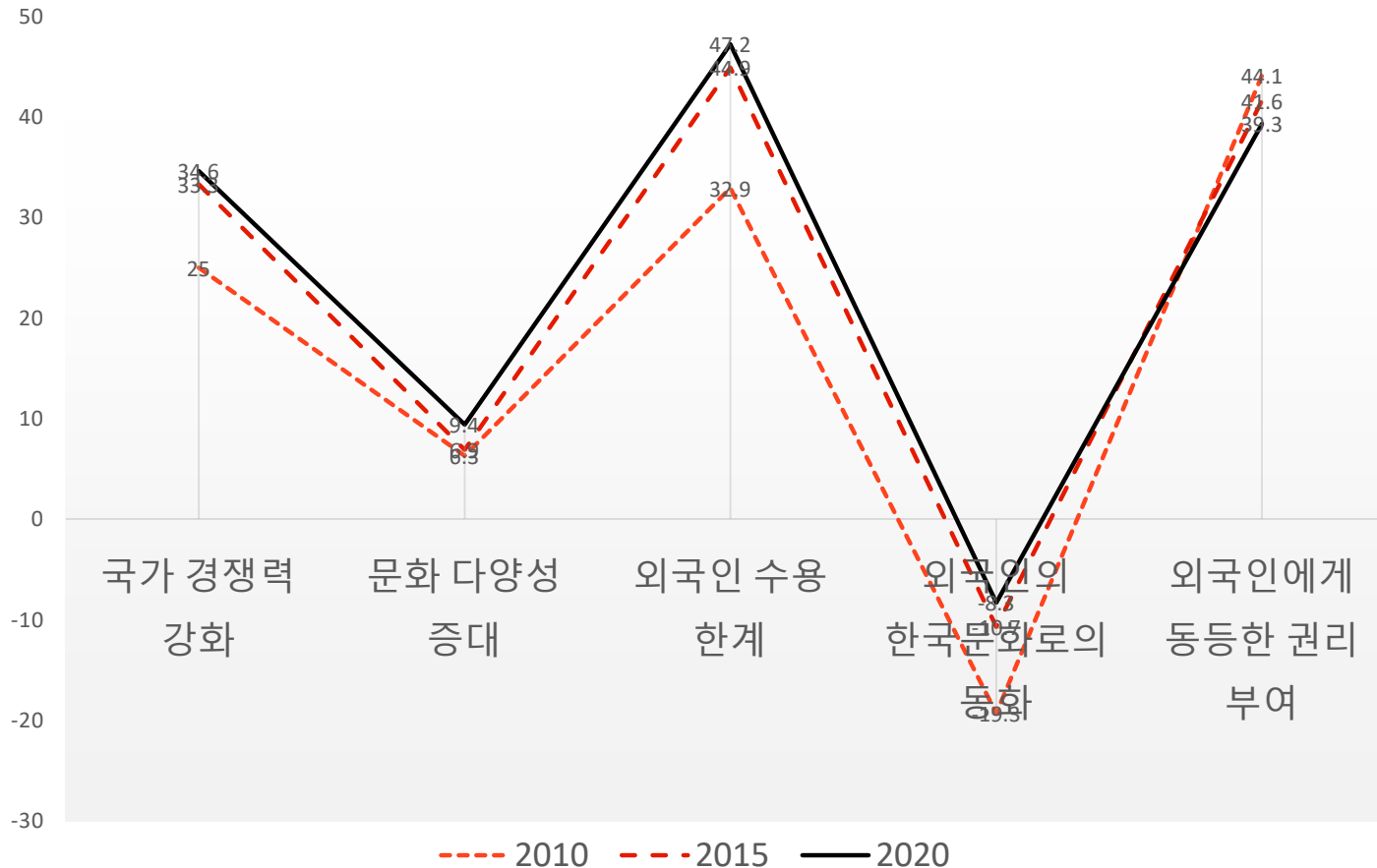
보기	조사 년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긍정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	긍정부정%차 이	모름/ 무응답
어느 국가든 인종, 종교, 문화가 다양 해지면 국가 경쟁력 에 도움이 된다	2010	6.7	41.1	47.8	29	19.7	3.1	22.8	25	0.4
	2015	8.3	42.1	50.4	32.6	15	2.1	17.1	33.3	0
	2020	7.2	44.6	51.8	31.1	15.9	1.3	17.2	34.6	0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 해진다	2010	4.5	29.1	33.6	38.9	23.6	3.7	27.3	6.3	0.2
	2015	4.8	29.6	34.4	38.1	24.3	3.2	27.5	6.9	0
	2020	6.2	28.3	34.5	40.4	22.7	2.4	25.1	9.4	0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다른 종교, 다 른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을 받아들이 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2010	5.8	43.1	48.9	34.9	14.4	1.6	16	32.9	0.1
	2015	8.8	48.1	56.9	31.1	10.8	1.2	12	44.9	0
	2020	9.2	47.9	57.1	33.1	9.7	0.1	9.8	47.2	0.1
외국인 '이주자'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과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 을 버려야 한다	2010	4	20.3	24.3	31.7	34	9.6	43.6	-19.3	0.2
	2015	4.7	25.1	29.8	29.7	32.7	7.8	40.5	-10.7	0
	2020	3.2	23.6	26.8	37.9	30	5.1	35.1	-8.3	0.2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투 표권이나 사회보장에서 한국 사람과 동등한 권리 를 주어야 한다	2010	12.4	43.6	56	32.1	10.5	1.4	11.9	44.1	0
	2015	14.4	41.2	55.6	30.4	11.5	2.5	14	41.6	0
	2020	9.2	42.9	52.1	35.1	9.2	3.5	12.7	39.3	0.2

02 한국인의 다문화화에 대한 인식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변화(2010~2020)

Q. 귀하는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응답비율과 부정응답비율의 차이)



- 다문화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점을 인지하는 비율 **↑**
- 실질적·제도적 차원에서 외국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

다문화 인식의 다면성

03 한국인의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인식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2005~2020)

Q. 다음은 외국 및 외국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다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단위: %)

보기	조사년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긍정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	긍정부정 %차이	모름/ 무응답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살기에 좋은 나라이다	2005	6.1	25.6	31.7	35.7	25	5.5	30.5	1.2	2.1
	2010	6.5	41.5	48	34	16.1	1.6	17.7	30.4	0.3
	2015	9	43	52	31	15	2	17	35	0
	2020	14.6	52.2	66.8	23.3	9	0.8	9.8	57	0.1
나는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2005	5.8	24.4	30.2	26.9	19	22.5	41.5	-11.3	1.3
	2010	5.4	27.1	32.5	35.4	20.6	11.3	31.9	0.6	0.3
	2015	7.9	36.4	44.3	32.1	18.3	5.3	23.6	20.7	0
	2020	10.6	33.7	44.3	33.8	16.9	4.9	21.8	22.5	0.1
나는 같은 외국인이라도 출신나라 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2005	9.6	46.3	55.9	25.3	12.9	3.2	16.1	39.8	2.7
	2010	9.1	47.5	56.6	31.9	10	1.4	11.4	45.2	0.2
	2015	10.3	47.5	57.8	30.3	9.6	1.8	11.4	46.9	0
	2020	10.6	47	57.6	29.6	10.2	2.4	12.6	44.9	0.3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우리나 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 다	2005	7.8	31.6	39.4	28.6	22.7	7.5	30.2	9.2	1.9
	2010	6.3	34	40.3	34.7	20.4	4.4	24.8	15.5	0.3
	2015	7.1	31	38.1	33.5	25.2	3.1	28.3	9.8	0
	2020	5.8	36.9	42.7	32.2	22.5	2.6	25.1	17.6	0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범죄 율이 올라간다	2005	-	-	-	-	-	-	-	-	-
	2010	7.5	4.2	11.7	34.7	13.3	1.8	15.1	34.4	0.6
	2015	10.1	42.1	52.2	30.4	15.4	2	17.4	34.8	0
	2020	6.9	42	48.9	434.8	14.6	1.7	16.3	32.6	0.1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보다 쉽게 취 득할 수 있게 해야한다	2005	2.8	27.2	30	-	50.3	16.2	66.5	-36.5	3.5
	2010	4.2	36.5	40.7	-	50.2	8.7	58.9	-18.2	0.3
	2015	4.9	29.3	34.2	-	53.6	12.2	65.8	-31.6	0
	2020	3.9	29.7	33.6	33.6	53.3	13.1	66.4	-32.8	0

03 한국인의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인식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2005~2020)

- 다문화사회 범죄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과장된 우려 감소
- 자녀와 외국인의 혼인에 대한 거부감 감소
- 외국인 유입을 일자리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 증가
-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범죄
등의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일자리 등의 실질적 위협에서 강화

-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이다” 동의 비율(2015년 52%→2020년 66.8%) 대폭 증가
 1. 각종 예능/교양 프로그램의 외국인 패널
 2.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의 국가 자부심

03 한국인의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인식

한국인의 국가 자부심(2005~2020)

(조사기간: 2020년 5월 6일~27일)

-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문항에서 2020년 한국인의 국가자부심이 지난 조사에 비해 증가
- 민주주의 성숙도,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사회보장 수준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응답비율이 과반일 뿐만 아니라, 2015년과 비했을 때 10%p에서 35%p가까이 증가
- 반대로 경제적 성취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비중은 하락

➡ 최근 한국인이 느끼는 국가 자부심이 제도적 우수성, 대외적 위상 등 질적 측면에서 기인

➡ 특히 설문조사 시점에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모범국의 행보를 보인 점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有

	조사년도	매우 자랑스롭다	대체로 자랑스롭다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자랑스럽지 않다	긍정-부정 %차이	모름/무응답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	2005	4.6	37.6	42.2	49.1	6.5	55.6	-13.4	2.2
	2010	3.7	46	49.7	45.2	4.9	50.1	-0.4	0.2
	2015	6.5	45.5	52	45.2	5.8	51	1	0
	2020	12	62.3	74.3	25.1	0.5	25.6	48.7	0.1
국제무대에서의 정치적 위상	2005	2.9	26.4	29.3	51.9	16.4	68.3	-39	2.4
	2010	4.9	43.4	48.3	43.4	7.4	50.8	-2.5	0.9
	2015	7	42	49	43.1	7.9	51	-2	0
	2020	11.1	50.2	61.3	35.8	2.7	38.5	22.8	0.2
경제적 성취도	2005	5	44.2	49.2	39.8	9.3	49.1	0.1	1.8
	2010	7.8	56.1	63.9	33.9	1.7	35.6	28.3	0.5
	2015	12.9	56.3	69.2	28.7	2	30.7	38.5	0
	2020	11.8	56.5	68.3	29.6	2	31.6	36.7	0.1
군사력 수준	2005	3.1	27.5	30.6	41.1	14.1	55.2	-24.6	4.3
	2010	1.6	38.4	40	51.3	8.2	59.5	-19.5	0.6
	2015	4.7	40.5	45.2	49.7	5	54.7	-9.5	0
	2020	6.7	49.9	56.6	40.4	2.9	43.3	13.3	0.2
사회보장 수준	2005	1.3	15.7	17	55.9	25.2	81.1	-64.1	1.9
	2010	2.5	34.2	36.7	49	13.9	62.9	-26.2	0.5
	2015	4.5	41.5	46	46.7	7.2	53.9	-7.9	0
	2020	20.5	60.3	80.8	18.5	0.4	18.9	61.9	0.2
보건의료 수준	2020	52	43.9	95.9	3.7	0.3	4	91.9	0.2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적 대우	2005	1.4	17.1	18.5	53	25.6	78.6	-60.1	2.9
	2010	1.8	31.2	33	54.2	12.3	66.5	-33.5	0.5
	2015	3.3	31.4	34.7	51.3	14	65.3	-30.6	0
	2020	4.4	41.9	46.3	49.1	4.5	53.6	-7.3	0.2
한국 국민의 국민성	2005	-	-	-	-	-	-	-	-
	2010	6.2	50.2	56.4	40	3	43	13.4	0.6
	2015	7.7	51.2	58.9	35.4	5.6	41	17.9	0
	2020	7.6	54.9	62.5	34.5	2.9	37.4	25.1	0.1

03 한국인의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인식

한국인의 국가 자부심(200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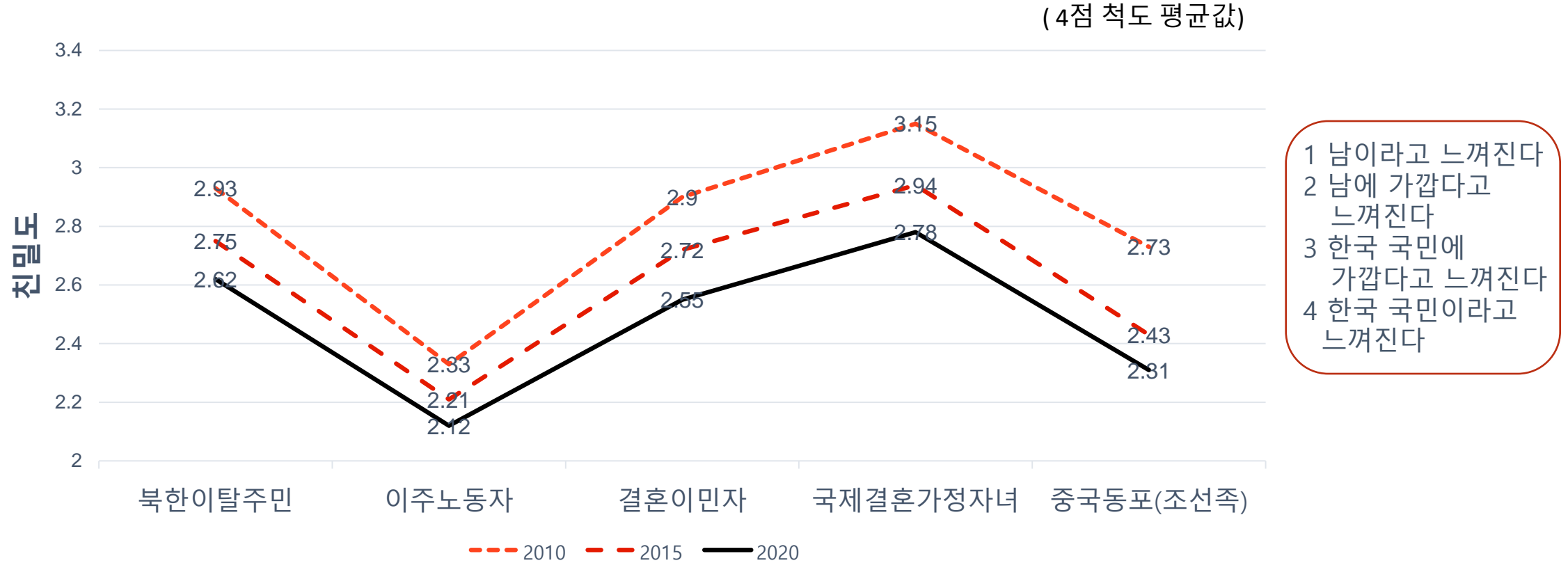
2020년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살기에 좋은 나라이다			
		긍정	부정	중간	전체
사회보장 수준	자랑스럽다	556 (69.9%)	67 (8.3%)	177 (21.9%)	810 (100%)
	자랑스럽지 않다	103 (54.2%)	31 (16.3%)	56 (29.5%)	190 (100%)
	전체	669 (66.9%)	98 (9.8%)	233 (23.3%)	1000 (100%)

2020년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살기에 좋은 나라이다			
		긍정	부정	중간	전체
국제무대에 서의 정치적 위상	자랑스럽다	431 (70.2%)	52 (8.5%)	131 (21.3%)	614 (100%)
	자랑스럽지 않다	238 (61.7%)	45 (11.7%)	103 (26.7%)	386 (100%)
	전체	669 (66.9%)	97 (9.7%)	234 (23.4%)	1000 (100%)

➡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사람은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03 한국인의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인식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친밀도 변화 (2010~2020)



- 한국인이 가깝게 느끼는 집단 순서는 10년 간 변화 없음: 국제결혼가정 자녀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 중국동포 – 이주노동자
- 10년간 모든 집단에 대한 친밀도가 낮아져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하는 양상

03 한국인의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인식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친밀도 변화 (2010~2020)

(단위: %)

	조사 년도	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가까운 사회적 거리감	남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남이라고 느껴진다	먼 사회적 거리감	긍정- 부정% 차이	모름/ 무응답
북한이탈 주민	2010	26.9	43.7	70.6	23	5.4	28.4	42.2	1
	2015	16.9	50.2	67.1	24.5	8.4	32.9	34.2	0
	2020	9.5	51.4	60.9	31.1	8	39.1	21.8	0
이주노동 자	2010	7.4	30.8	38.2	47.8	13	60.8	-22.6	0.9
	2015	5.6	31	36.6	42	21.4	63.4	-26.8	0
	2020	2.1	26.7	28.8	52.5	18.6	71.1	-42.4	0
결혼이민 자	2010	24.7	45.5	70.2	23.9	5.4	29.3	40.9	0.5
	2015	13.3	52.7	66	26.7	7.3	34	32	0
	2020	8.1	56.4	64.5	33.6	9.7	43.3	21.2	0.3
국제결혼 가정자녀	2010	35.9	45	80.9	16.2	2.5	18.7	62.2	0.4
	2015	24.9	51	75.9	18	6	24	51.9	0
	2020	17.2	50.2	67.4	26	6.4	32.4	35	0.1
중국동포(조선족)	2010	17.9	42.1	60	33.8	5.7	39.5	20.5	0.5
	2015	10.7	34.9	45.6	41.6	12.9	54.5	-8.9	0
	2020	3.3	36.8	40.1	47.1	12.9	60	-19.9	0

- 가까운 사회적 거리감을 드러낸 응답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감소, 먼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응답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증가.
- 이주노동자의 경우 2020년 긍정-부정%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조선동포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2010년 조사와 2015년, 2020년 조사에 큰 차이

04 한국인의 소속감

대한민국,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 소속감(2005~2020)

(4점 척도 평균값)

		대한민국 국민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
2005년	평균	3.03	2.82	2.43	2.13
	표준편차	0.77	0.83	0.88	0.84
2010년	평균	3.22	2.81	2.54	2.16
	증가 폭	0.19	-0.01	0.11	0.03
	표준편차	0.79	0.89	0.91	0.89
2015년	평균	3.29	2.98	2.69	2.4
	증가 폭	0.07	0.17	0.15	0.24
	표준편차	0.75	0.83	0.92	0.92
2020년	평균	3.33	2.76	2.57	2.32
	증가 폭	0.04	-0.22	-0.12	-0.08
	표준편차	0.69	0.78	0.84	0.84

- 대한민국 소속감은 4개 조사에서 일관되게 증가
-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에 대한 소속감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 조사에서 모두 하락

한국인들은 2015년까지는 이전보다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으로서 자신을 좀 더 가깝게 느끼다가 2020년에는 이러한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임

질문: 귀하가 속한 다음의 집단에 얼마나 가깝게 혹은 가깝지 않게 느끼십니까?

04 한국인의 소속감

연령별 대한민국,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 소속감 (2005~2020)

- 2020년의 경우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한민국 소속감 상승.
그 외의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에 대한 소속감은 모든 연령대에서
2015년 조사보다 하락.
- 2015년 조사에서 모든 영역에서 소속감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60대 이상
- 2020년 조사의 경우 대한민국과 한민족에서는 50대가, 아시아인과
세계인에서는 40대가 가장 높음
- 20대의 경우 2010년 조사를 제외하면 모든 연도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한민국,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에 대한 소속감이 낮음

전체적으로 20대와 30대의 젊은 층보다 40대 이상의 세대에서 모든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더 높음

(4점 척도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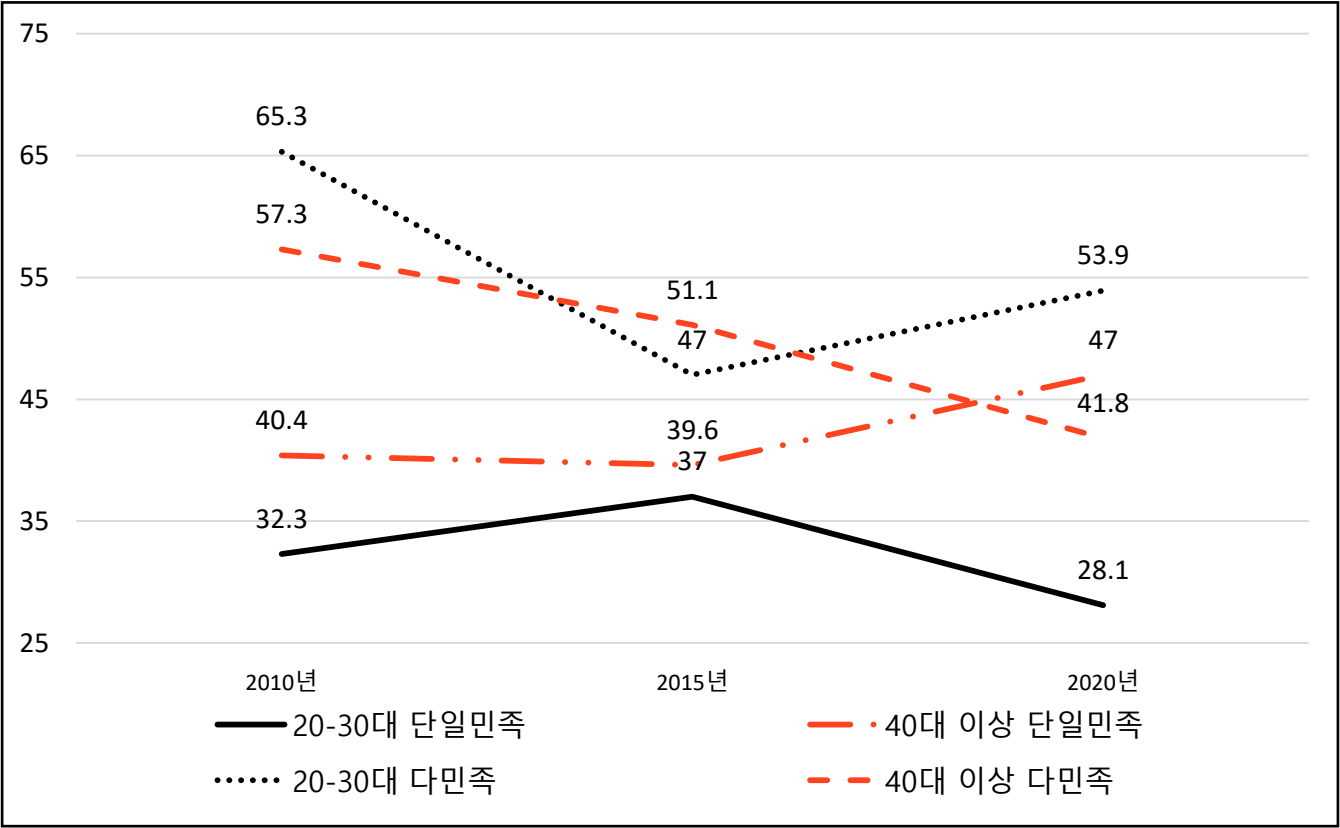
연령대	연도	대한민국 국민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
20대	2005	2.97	2.62	2.25	2.04
	2010	3.22	2.7	2.53	2.27
	2015	3.14	2.82	2.52	2.23
	2020	3.21	2.64	2.53	2.3
30대	2005	3.0	2.84	2.5	2.18
	2010	3.21	2.81	2.54	2.21
	2015	3.18	2.86	2.61	2.36
	2020	3.35	2.75	2.54	2.28
40대	2005	3.11	2.94	2.52	2.22
	2010	3.16	2.78	2.58	2.15
	2015	3.25	2.92	2.67	2.37
	2020	3.34	2.76	2.62	2.35
50대	2005	2.97	2.8	2.34	2.07
	2010	3.26	2.83	2.58	2.14
	2015	3.36	3.06	2.74	2.47
	2020	3.42	2.89	2.54	2.29
60대 이상	2005	3.12	2.89	2.55	2.13
	2010	3.26	2.91	2.46	2.04
	2015	3.49	3.18	2.89	2.52
	2020	3.3	2.78	2.57	2.32

04 한국인의 소속감

연령별 다문화화 인식 변화 (2010~2020) (단위: %)

		단일민족· 단일문화국가	다민족· 다문화국가	잘 모르겠다
20대	2010	30.9	66.1	3.0
	2015	39.7	44.8	15.4
	2020	29.1	46.7	20.9
30대	2010	33.6	64.7	1.7
	2015	35.4	48.9	15.7
	2020	25.5	59.0	13.7
40대	2010	30.6	66.8	2.6
	2015	32.4	58.1	7.7
	2020	36.3	50.0	11.1
50대	2010	44.2	53.3	2.5
	2015	43.7	48.7	7.7
	2020	46.5	42.9	7.1
60대 이상	2010	48.3	49.7	2.0
	2015	41.0	46.7	12.5
	2020	50.4	31.3	13.2
전체	2010	37.1	60.6	2.4
	2015	38.9	49.7	11.6
	2020	39.1	44.4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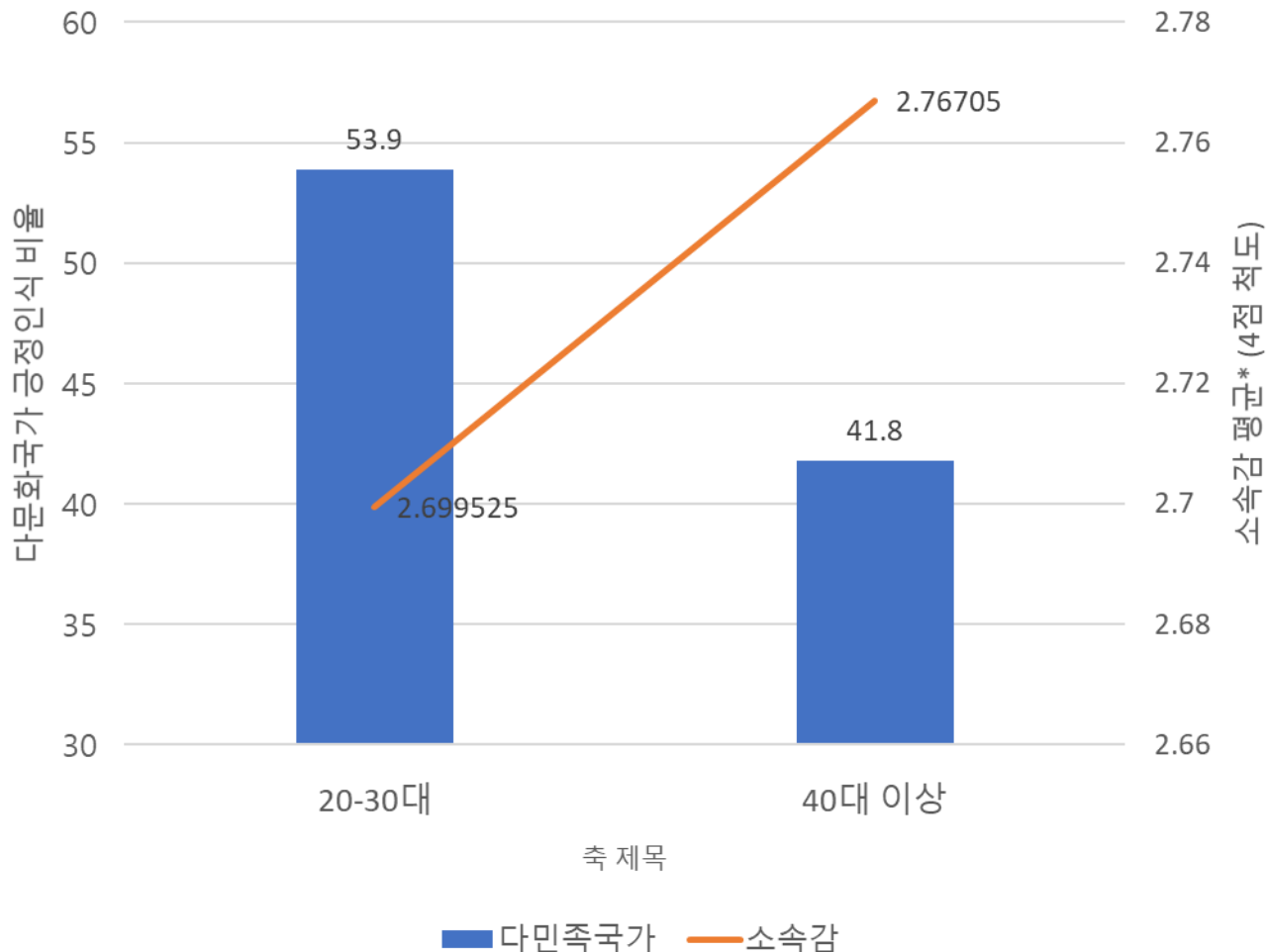
(단위: %)



- 20대와 30대의 청년층은 2015년 일시적으로 단일문화국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가 2020년 조사에서는 다시 다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응답 비율이 증가
-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단일문화국가에 대한 요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
-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다문화국가보다 단일문화국가를 지향하는 보수적인 태도

04 한국인의 소속감

다문화국가 긍정인식비율 및 소속감 평균 비교 (2020년)



* 대한민국, 한반도, 아시아인, 세계인에 대한 4점 척도 평균값

대한민국 국민, 한반도, 아시아인, 세계인에 대한 소속감이 낮은 20-30대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인식비율이 높은 반면, 소속감이 높은 40대 이상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인식비율이 낮음

세계 속의 한국

대한민국, 한반도, 아시아인, 세계인 소속감: 사회의 주류로서 느끼는 내집단에 대한 애착
아시아, 세계 소속감: '나'의 행동반경이 넓어진 것에 따른 내집단 확장

한국 속의 세계

한국의 다문화화: 자신이 주류로 속한 사회에 낯선 타인의 진입

05 세부집단별 다문화국가 인식

교육 수준별 다문화화 인식(2010~2020년) (단위: %)

		단일민족. 단일문화국가	다민족. 다문화국가	잘 모르겠다
2010년	중졸 이하	52.1	46.1	1.8
	고졸	36.2	61.8	2.0
	대학재학 이상	32.5	64.6	3.0
2015년	중졸이하	44.3	39.9	15.8
	고졸	38.8	50.4	10.8
	대학재학 이상	37.0	52.0	10.9
2020년	중졸 이하	52.2	30.4	13.0
	고졸	40.5	41.3	13.5
	대학재학 이상	33.8	51.3	12.7

- 고학력층에서 다문화국가 지지도가 높음
- 다문화국가를 지향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 학력 수준에서 10년간 꾸준히 감소
- 2005년에 비해 2010년과 2015년 유보적 입장 크게 증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우리나라 일자리 위협에 대한 학력 수준별 인식(2020년) (단위: %)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우리나라 일자리 위협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중졸이하	53.60	33.3	13.00
고졸	47.80	26.5	25.80
대학재학 이상	35.10	36.6	28.20

- 학력이 낮을수록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일자리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 높음

05 세부집단별 다문화국가 인식

한국의 다문화화 인식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2020년)

(4점 척도)

	외국인 범죄율 증가	외국인 노동자 한국인 일자리 위협	국적취득 외국인에게 동등권 보장	이주자는 다른 전통과 습관 버려야	외국인 수용에 한계	이주자 늘면 문화 풍부해짐	문화다양성은 국가경쟁력
단일민족· 단일문화국가	3.48	3.28	3.37	3.06	3.68	2.94	3.21
다민족· 다문화국가	3.26	3.1	3.59	2.77	3.48	3.37	3.64

한국의 다문화화 인식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2015년)

(4점 척도)

	외국인 범죄율 증가	외국인 노동자 한국인 일자리 위협	국적취득 외국인에게 동등권 보장	이주자는 다른 전통과 습관 버려야	외국인 수용에 한계	이주자 늘면 문화 풍부해짐	문화다양성은 국가경쟁력
단일민족· 단일문화국가	3.58	3.19	3.43	2.96	3.62	2.87	3.22
다민족· 다문화국가	3.31	3.1	3.7	2.78	3.47	3.29	3.58

- 2015, 2020년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한국이 다문화국가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단일문화 국가를 지향하는 집단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06 나가며

2020년 조사에서 드러난 다문화에 대한 미온적·배타적 태도는 2015년 조사에 비해 강화됨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옴

외국인에 대한 무지와 막연한 두려움은 감소하였으나, 일자리 위협, 사회보장제도 제공, 주권 획득 등의 실질적·제도적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소속감 역시 대한민국을 제외한 한반도, 아시아인, 세계인 영역에서 감소. 또, 높은 소속감이 다문화화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정치적 올바름, 도덕, 인권 등의 논의에서 나아가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통합 방안, 융합의 방향,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 요구됨

감사합니다